**서먹한 아빠, 당신 탓이 아니에요**

**[상상사전] ‘돈’**

신수용

**"나는 가족 전용 현금 출납기다."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직장의 ‘부장님’ 얘기다.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‘저녁 없는’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, 내 나이대 자식과는 서먹서먹하다고 했다. 용돈 줄 때 말고는 자식들과 얼굴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다고 했다. ‘대리님’은 아기가 자신을 볼 때마다 운다고 했다. 해뜨기 전 나가 밤늦게 집에 가니 아빠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고 했다.**

**우리 아빠 얘기이기도 하다. 어릴 적에는 주말마다 소파에 누워 있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밖에 나가자고 졸랐다.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“몇 시에 집에 오냐”는 아빠의 채근 전화를 받은 게 대화의 거의 전부였다. 엄마도 아빠와 대화가 뜸해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주말에는 아빠 홀로 집을 지키기 십상이다. ‘나가봐야 돈만 쓴다’는 게 아빠의 지론이다.**

**처음으로 아빠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, 영화 <기생충>을 보러 가자고. 아빠는 벌떡 일어났다. 동네 영화관이어서 나는 집에서 입는 운동복 차림으로 나갈 참인데, 아빠는 정장을 하고 현관을 나섰다. 아빠는 19금 장면이 나올 때마다 움찔거리며 콜라를 들이켰다. 영화관을 나와서는 국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는 분이 이탈리안 식당을 거부하지 않았다. 아빠는 몇 젓가락 안 되는 파스타가 비싸다고 불평하면서도 즐거워했다.**

**지난 6월 스웨덴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“한국은 아직 (남성이) 육아휴직을 쓰면 '출세를 포기한 남자'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”며 한국 아빠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. 한국 아빠들이 스웨덴처럼 라떼파파(한 손에 라떼를 든 육아하는 아빠)가 될 수 없는 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, 돈 때문이다.**

**아버지들도 자식과 친해지고 싶다. 돈에게 자식과 유대관계를 쌓을 기회를 빼앗겼을 뿐이다. 한국인의 근로 시간은 몇 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1, 2위로 길다. 육아 휴직은 퇴사를 각오해야 하는 모험이다.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빠들에겐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. 2017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는 1만2천여 명뿐이다. 육아휴직을 용감하게 실행해도 문제다. 첫 3개월간 육아 수당 상한액은 150만원,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이다.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376만원이다. 엄마만 벌면 살림이 빠듯해질 위험이 있다.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.8% 수준이다.**

**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감독의 영화 <그렇게 아버지가 된다>는 자식 관계에 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. 감독은 딸이 “아빠, 다음에도 또 놀러 오세요”라고 인사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.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, 집에 못 가는 날도 많은 영화감독의 일상이 어린 딸의 시선에서는 아빠가 집에 놀러 오는 손님처럼 보인 것이다. 가족 영화로 유명한 감독이 정작 딸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.**

**관계는 결국 시간에 비례한다. 생계 최전선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밤낮 열심히 일하다가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여유를 소진해버렸다. 육아는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아빠의 권리이기도 하다. 우리 아빠가 라떼를 들고 내가 탄 아기차를 밀 수 있었다면, 연인과 헤어진 날이나 시험에서 떨어진 날 아빠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 함께 소주잔을 기울였을지도 모른다.**